

# 나의 우리 옷에 대한 이해와 창작

이 기 연

(주)질경이우리옷 대표이사

## 1. 머리말

흔히 사람들은 난 ‘옷을 몰라’ 하면서도, 어떤 형태든 옷을 입는다. 그리고 그 옷을 입은 ‘최종형태’는 곧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. 사실은 ‘어떤 옷을 입느냐’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.

옷은 한 사람의 전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, 오랜 세월 축적되면, 각 계급 계층, 지역, 국가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고, 나아가 한 시대의 역사적인 모든 요소들을 반영하고 그 시대정신과 철학까지를 반영한다. 그런데, “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옷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생활에서 사라졌다...???”

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. 식민지 생활을 우리보다 몇 배나 더 겪은 나라들도 이렇지는 않다.

이건 ‘사건’이다. 외국 유명상품들의 ‘세계 5위권 안에 드는 물 좋은 옷 시장’, ‘테스팅 마켓’, ‘10대들에게까지 번진 명품계’ 등등이 우리의 현실이다. 옷을 통해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시장 논리를 만나게 된다.

문화는 ‘습관’이다. 우리옷이 생활 속에서 사라질 때, 우리의 정신적 자주성도 지켜내기 힘들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.

한국의상연구가 창작의 모태가 되고 그 창작품이 문화를 선도하는 풍토가 절실하다.

## 2. 우리 옷의 특징

인체를 해방시키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며 자연과 상생하는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.

- 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옷이다.
- ② 추운 지방과 더운 지방의 옷의 특징이 서로 어울린 독특한 형태를 지닌다.
- ③ 자연 친화적이다.
- ④ 공동체 정신이 담긴 형태이다.

- ⑤ 인체순환구조와 활동공간까지 배려한 4차원의 공간 개념이 들어 있다.
- ⑥ 입는 사람이 자신의 개성에 따라 연출할 수 있는 열린 구조이다.
- ⑦ 색채는 오방색을 중심으로 사용한다.
- ⑧ 옷을 내 몸의 일부, 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.

### 3. 맺음말

서유럽의 기술 문명은 한계에 와 있다. 그들의 자연관으로는 자연파괴와 인간성 파멸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. 우리 문화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르며 자연과 상생하는 삶의 철학이 들어 있다. 이것은 서구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아주 중요한 단서라 하겠다.

그동안 우리는 서구 편향주의에 빠져 우리문화를 천대해 보기도 했고, 우리의 장점을 확대 해석하는 국수주의에 빠져 보기도 했다. 이 두 가지 경향은 지금도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평가르기를 하고 있다.

우리는 서양이 잘못 디딘 발걸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되며, 근대화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, 훌륭한 대안을 우리 문화에서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 자세와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라 하겠다. 철학이 없는 현대화, 세계화는 함정이다.